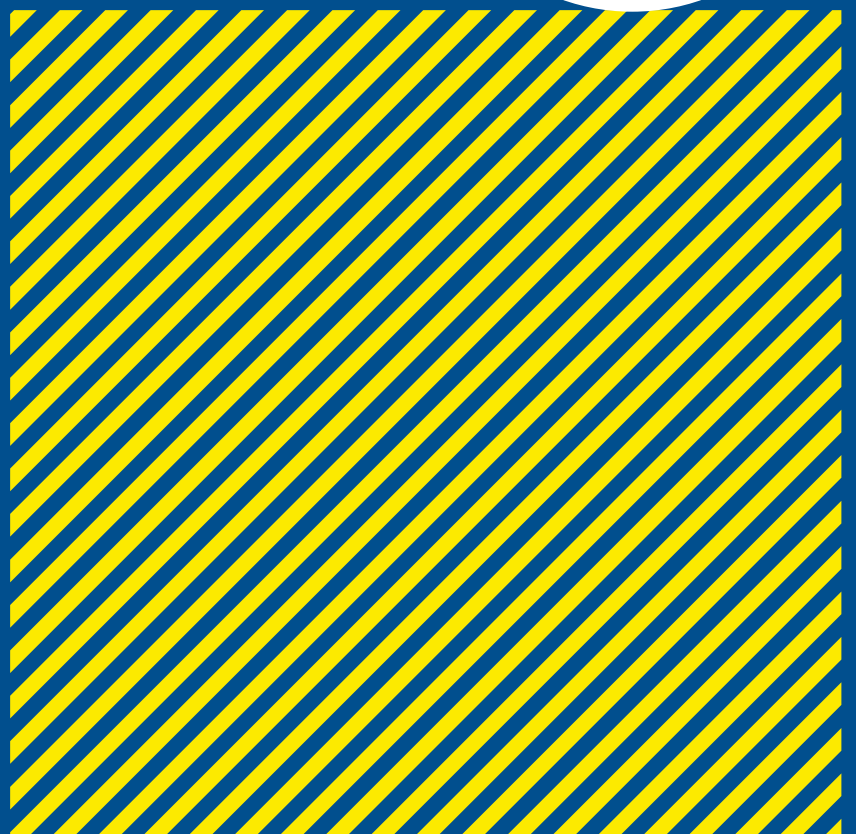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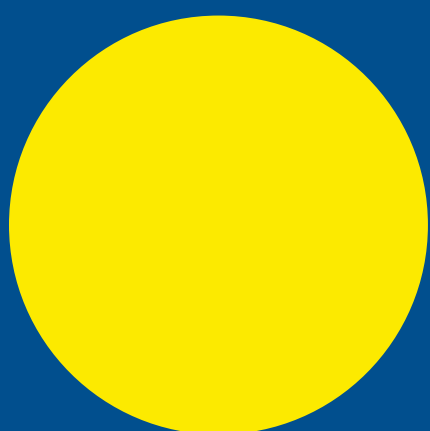


# 지역어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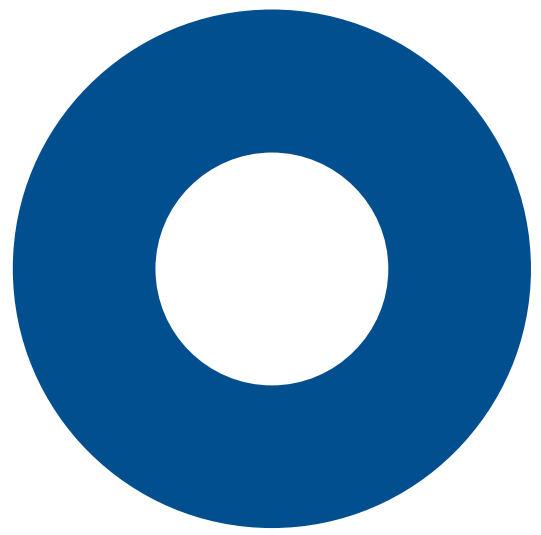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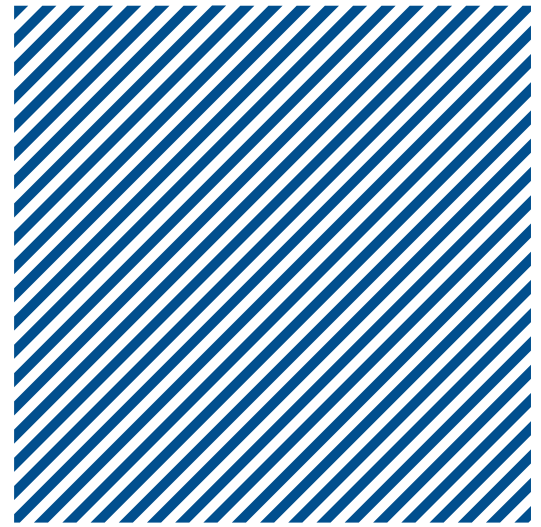


우리말글 사랑 홍보활동  
2018060373 왕적



# 지역어를 보존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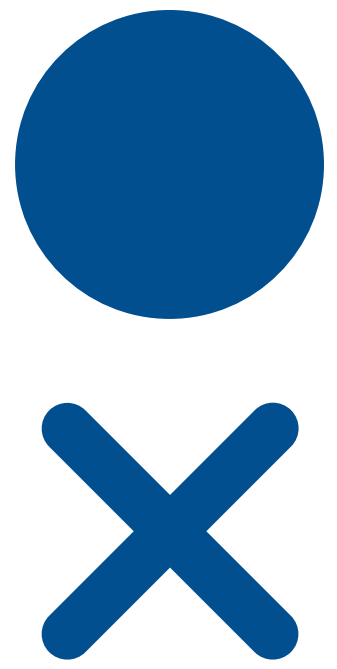
---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말인 지역어  
는 지역 정체성의 핵심"**

**"지역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지역  
어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민  
의 의무기도 하다"**

# 지역어 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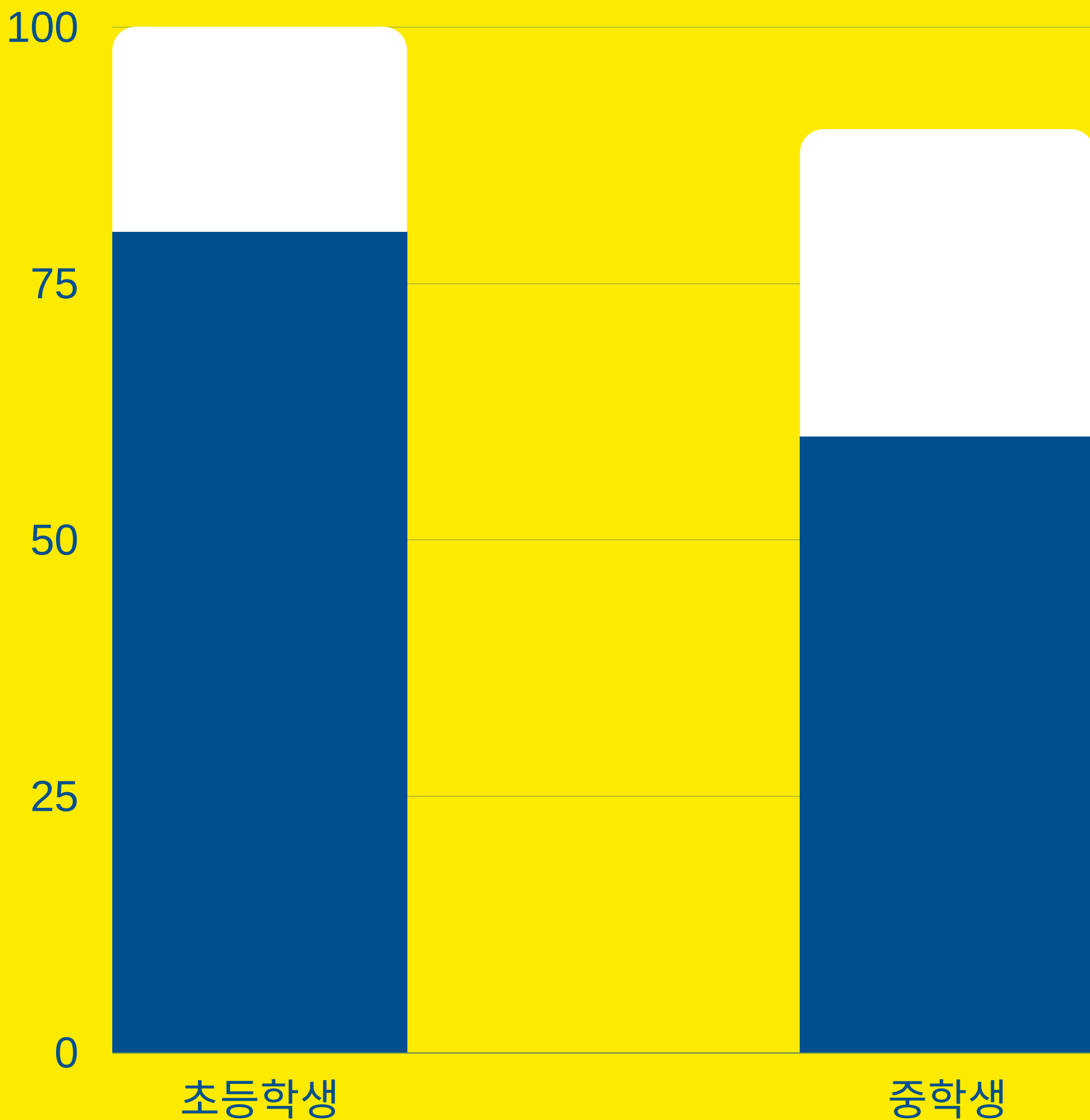
## 맞닥뜨린 어려움

"표준어는 강력한 언어정책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유독 표준어와 표준어가 아닌 말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을 통해서나 방송 시 사투리는 쓰지 말라고 가르쳐 와, 지금은 사투리 쓰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많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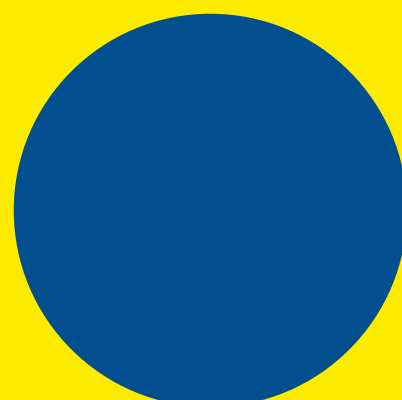
표준어와 지역어는 가치가 동등한데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표준어 쓰는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한다거나 주눅 드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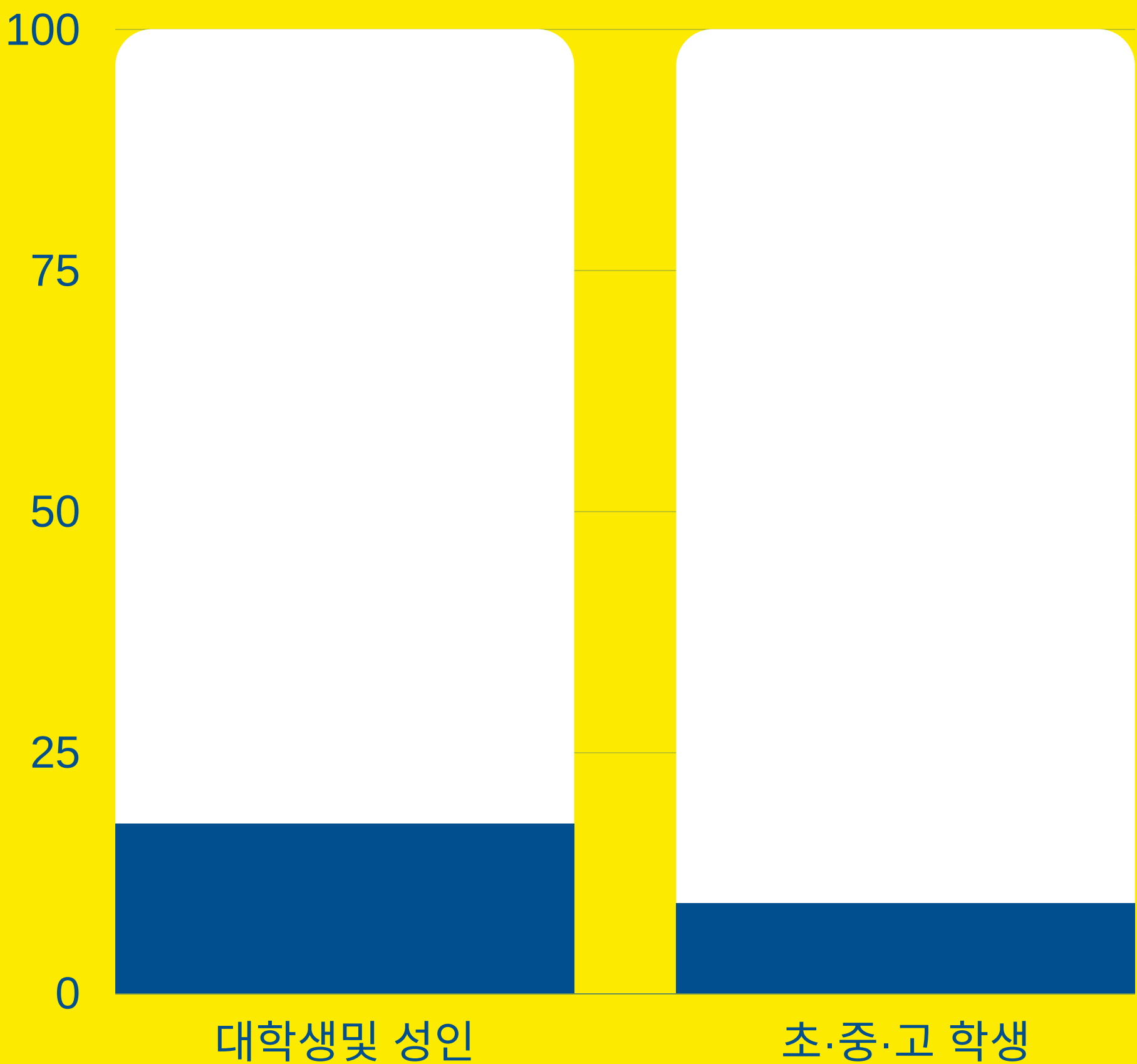
"시내에 교정학원이 있는 것처럼 취업 앞두고 '교정한다'. 구직,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사투리를 써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점은 문제"



## 조사결과

**이 조사에 따르면 진주의  
대표적 지역어인 '진짜,  
정말'을 뜻하는 '에나'의  
경우 초등학생은 80%  
이상, 중학생은 60% 이  
상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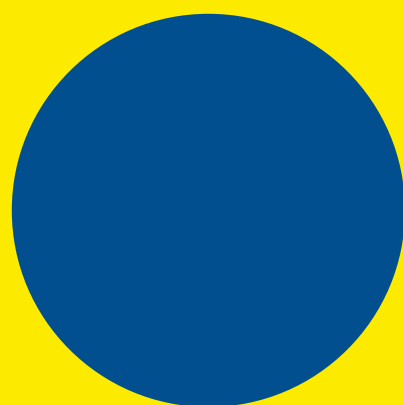




## 조사결과

**'바르게, 똑바로, 열심히'를 뜻하는 '단디'는 '알고는 있지만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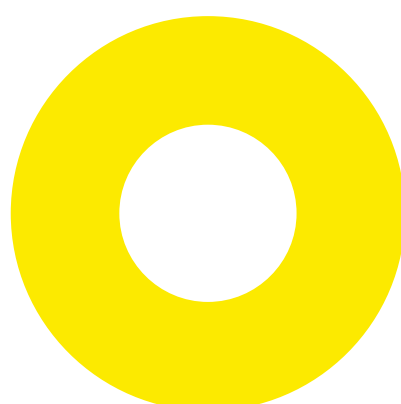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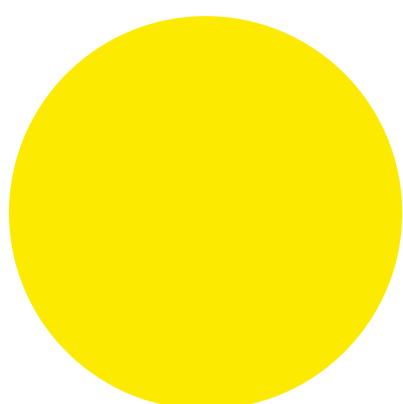
**'공연히'를 뜻하는 '배끼'와 '겨우, 빠듯이'를 뜻하는 '보도시'도 소멸 직전에 있다. 초·중·고 학생은 10% 미만으로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대학생과 성인도 그 수치가 20%를 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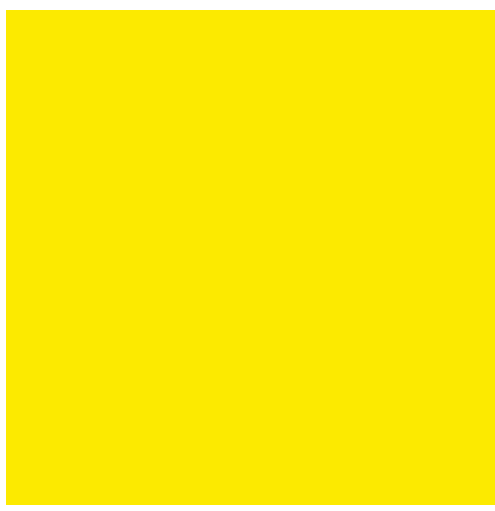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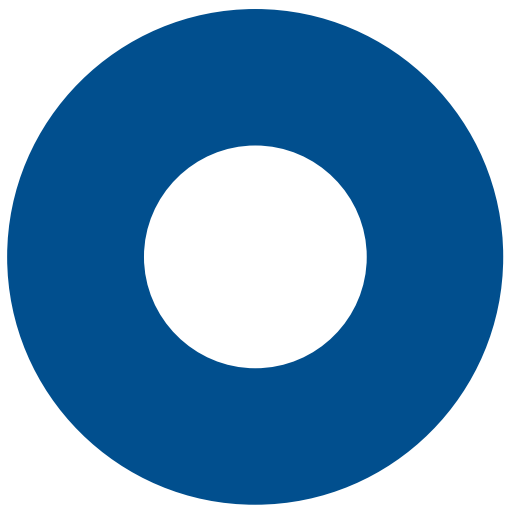


# 지역어 부흥 관한 생각

"자신의 지역에서 나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지금 세대들에게 지역어가 '선물'이 될지 '장애'가 될지는 지역민들이 문화 자긍심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후속 세대들이 지역을 외면하면 지역의 미래는 없으며, 학생들이 지역어 사용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교육과 행정의 실패다. 한국사회는 늦기 전에 '지역어 부흥 정책'을 펴야 한다"





# 반성

**줄임말, 외래어, 신조어 사용이 많아 세  
대 간의 소통이 힘든 요즘, 한 번쯤 우리  
고유한 언어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면 어  
떨까.**